

과일값 고공행진에 식료품 물가 7%대 '깡충'

2021년 이후 최고치...과일 물가 전년비 38.3% ↑ 영향 저소득층 부담 커져 식료품 등 실질 소비 3.9% ↓ 감소세

올해 들어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뛰어들면서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가계의 먹거리 소비도 감소하는 양상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올랐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2021년(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식료품 물가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5.3%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10월 6.9%로 뛰어오른 뒤 올해 1월(6.0%)까지 4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에 7.3%로 높아졌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10월(7.5%)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은 과일 가격의 급등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작황 부진 등으로 사과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대체 수요로 굴 등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과일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식료품 중 과일 물가지수는 지난달 16.13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3% 뛰어들었다. 이는 1991년 9월(43.3%)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채소 및 해조도 작년 3월(12.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 11.3% 오르면서 식료품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물가에 가계의 실질적인 식료품 소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과일 가격 급등으로 식료품 물가 또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올랐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2021년(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영근기자

액은 지난해 4분기 평균 40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 지출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식료품에 지출한 돈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소비

량은 줄어든 것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실질 지출은 2021년 4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7개 분기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 1.1%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또 다른 먹거리 소비인 식사비(외식비)의 실질 지출도 지난해 4분기(0.2%)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0.8%), 3분기(-2.0%)에 이어 3개 분기째 '마이너스'(-)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실질 지출은 7.7% 감소했다. 2분위(-1.5%), 3분위(-2.2%), 4분위(-4.0%), 5분위(-4.5%) 등 다른 가구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1분위의 식사비 실질 지출도 5.8% 줄어 2분위(-4.2%), 3분위(3.1%), 4분위(0.0%), 5분위(0.8%) 등 다른 분위보다 감소폭이 컸다. 먹거리 물가의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조선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원·하청 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목표지정,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7개사 책임자 참석

고용노동부 목표지정은 10일 “최근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주)에서 조선업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간 안전 보건 상호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주), (주)DHMC, 대삼중공업(주), 대한조선(주), (주)보원엔엔피, (주)유일, 현대hips(주) 등 7개사 조선업 모기업 안전보건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 예방 체계’ 구축·이행 우수 사례 발표·공유와 조선업 사망 사고의 감축을 위한 원·하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조선업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원·하청 간 안전 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모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위협성 평가 방법 등 안전 노하우를 소규모 협력 업체에 공유함으로써 조선업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철준 목표고용노동부장은 “지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모집

광주·전남중기청, 지역자율형 등 3개 유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자율형 바우처 ▲융복합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지방정부가 선정할 ‘레전드 50’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만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융복합 바우처는 업종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징하고 약 10억원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확대됐다.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예방 안전장비 구비 등을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올해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지원 문턱을 완화해 협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2차 공고는 특정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1월부터 중소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정은솔기자

‘제주도와 전남농산물 만남’ 성료

전남농협, 제주도 하노마트서 직거래장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0일 “지난 7-9일 제주도농협 하노마트에서 ‘제주도와 전남농산물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한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농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적극 활용, 제주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장터를 통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전남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상큼에’ 딸기를 비롯해 사과, 방울토마토 등 제철 농산물 판매 부스와 여수 10미에 들어가는 갖가지, 김치 버무리 부스 등 다양한 농산물·먹거리를 선보였다. 또 행사기간 중 판매된 농산물은 시



중 대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2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는 영광 유기농 쌀(500g) 증정행사도 함께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택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큼에’를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전남의 고품질 농산물을 제주시에 널리 알리는 등 유통경로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내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C 유지하기
- 환기 뿔뿔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쌀!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캡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여보야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